

담양 죽녹원 '주말 상설 문화공연' 인기몰이

담양 풍물단·너울회 등 지역 예술인 공연 무대 자리매김

11월 23일까지 매주 토·일 2회 공연, 200~300여명 관람

담양의 대표적 관광지인 죽녹원에서 열리는 '주말 상설 문화공연'이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 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2월 담양군에 따르면 군의 지원을 받아 담양문화원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1시간가량 운영하는 주말 상설 문화공연이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주말 문화공연은 담양문화원이 지난해 9월부터 주말 2회 공연으로 상설화해 지금까지 58회 공연을 마쳤다.

11일과 12일에는 싱어송 라이터 박강수씨와 광주지역 1세대 포크송 가수인 국소남씨가 출연해 익숙한 가요와 팝송을 통기타 선율에 실어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했다.

담양읍에 조성된 대나무 테마파크인 죽녹

원은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담양의 대표적 관광지로서 주말에는 하루 평균 4천~5천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야외공연장에 마련된 주말 문화공연에도 매 회 200~300여명이 몰리고 있다.

담양문화원은 특히 주말 문화공연 출연자들의 절반을 담양지역 예술인들로 채워 마땅한 공연무대를 갖지 못한 지역 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 예술인으로는 지방문화재단 제 17호인 김동연씨가 이끄는 담양풍물단과 우리춤 연구모임인 '너울회', 노인들로 구성된 실버합주단, 난타팀 등이 있다.

담양문화원 고재동 사무국장은 "관광객들에게 담양의 문화를 알리고 이미지를 높이기



담양 죽녹원에서 열리는 주말 상설 문화공연에 대해 200~300여명의 관객들이 몰리고 있다.

위해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아 고정 팬들도 생겼다"며 "지역 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담양=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함평군 지방 상수도 운영 관리권 수자원공사 위탁 가시화

함평군 지방상수도 운영관리권을 한국수자원공사가 맡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이 추진 3년만에 가시화되고 있다.

함평군과 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005년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수립 및 계획수립,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계획 종합검토,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왔다.

또 주민공람 및 설명회와 타 지자체 사례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함평군의회 동의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는 함평군 상수도 운영관리권을 맡게 될 경우 시설 현대화를 위해 20년간 435억원(시설개선비 135억, 운영관리비 300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함평군이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교부세 20억원도 지원된다.

수자원공사는 향후 5년 이내에 현

재 유수율 37%를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수질도 개선할 방침이다.

수자원공사 측은 "시설 현대화로 누수량과 고정운영비 절감 등에 따른 편익 109억원이 발생하게 되고 체계적인 수질관리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들에게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함평군의회 A 의원은 "수자원공사에 위·수탁시 상수도요금 인상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높다"면서 "주민들의 이같은 우려를 감안해 군의회는 실시협약 체결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향후 인상 요인 발생시에는 군과 협의의를 거쳐 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운영을 위·수탁한 자치단체는 13곳에 달한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2010년 도민체전, 화순에서 치르자"

생체협·반영회·재광화순향우회 등 서명운동 돌입

화순군이 오는 2010년 제 49회 전남도민체전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순군은 2010년 도민체전을 화순에 유치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화순풍류문화큰잔치에서 군생활체육협의회, 반영회협의회, 재광화순향우회 등 사회단체가

중심이 돼 대대적인 도민체전 유치 서명운동을 벌인다.

화순군은 이미 지난 3월 14일 도민체전 유치 신청서를 도체육회에 내고 최근 도민체전 유치위원회 위촉식을 갖는 등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화순출신 이용대 선수가 배

이징 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이후 화순군민의 도민체전 유치 의지가 고조되고 있다.

군은 현재 신축중인 군민복합실내체육관이 내년 8월 완공되는 등 체전을 치를 수 있는 체육시설도 완벽히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다음달 초에 열릴 예정인 도체육회 회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전통 화목가마 청자' 즉석 경매합니다

강진 청자박물관 18일

전국 유일의 관요(官窯)인 강진 청자박물관이 고려청자 요지 사적지 제 69주년을 맞아 전통 화목(火木)가마에서 생산된 청자 작품을 즉석 경매로 판매한다.

강진청자박물관은 오는 18일 박물관 내 강진요 제2가마에서 40여 시간 구운 청자작품을 꺼내는

요출(窯出)행사와 함께 즉석 경매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나무 장작으로 굽는 화목(火木)가마는 최고 품질의 청자를 생산할 수 있으나 고비용에다 온도 조절이 쉽지 않고 작업 과정이 번거로워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돼 왔다.

이번 행사를 위해 도공들은 '청자삼강문화문 매병' 등 국보 재현

품 76점을 10여일에 걸쳐 물레와 성형, 소성 작업 등을 거쳤다.

특히 천년 이상 전통을 이어온 화목가마 굽기는 상감청자의 비색을 그대로 재현하는 등 최상의 청자 생산이 기대되고 있다.

박물관 측은 특별 경매와 함께 매주 토요일에 갖는 토요일매도 열 계획이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옥당골 어르신 행복 만들기' 호응

영광원전 봉사대·사회복지법인 난원 봉사활동

영광원자력본부(본부장 이심교) 지역봉사대와 사회복지법인 난원(이사장 김경욱)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옥당골 어르신 행복만들기'사업(사진)이 지역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영광군의 복지모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옥당골 어르신 행복만들기'사업은 농어촌인 지역 특성을 살려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복지, 의료 및 정신건강서비스를 펼치는 지역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봉사활동이다.

사회복지법인 난원은 영광원

전 봉사대원과 함께 지난 2006년 6월부터 매주 2차례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물리치료와 발마사지 등의 건강증진프로그램과 병원·보건소와 연계한 기초의료서비스 등을 꾸준히 제공해 왔다.

지난 2006년 6월 범성면 여자 경로당에서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 2년 4개월동안 200회에 달하는 경로당 방문을 통해 자원봉사자 2천212명이 6천7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봉사활동을 제공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노·사·민의 화합과 상생을 다지는 광양제철소 연리지 축제가 지난 9일 백운 그린랜드 특설무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광양제철 '연리지 축제' 성료

장기자랑·초청가수 공연 등 협력업체·주민 화합 한마당

광양제철소가 외주파트너사와 광양시민이 하나의 몸체로 동반성장 해 나가자는 뜻을 다지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광양제철소 연리지 축제'가 지난 9일 광양제철소 주력단지 내 백운 그린랜드 특설무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올해 연리지 축제는 자국민 자동차 강판만을 고집하는 도요타 자동차사에 광양제철소에서 생산

하는 자동차강판 공급을 축하하고 노·사·민의 상생을 위해 마련됐다.

축제 본 행사인 '연리지 마당'은 경쾌한 아이리시 탭댄스를 시작으로 '자동차강판 전문제철소 완성'이라는 비전선포에서 도요타 자동차 입성까지의 꿈 실현을 담은 영상물 상영, 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장기자랑 경연 및 초청가수 공연과 화려한 레이저와 조명 이 어우러진 멀티미디어쇼, 불꽃놀이로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한국전회번호부를 만나듯

다양한 방법

신속한 서비스로 전국 100만 명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

전화 -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방문 -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이메일 -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업종 및 상호 전화번호부

2008년 광고매장 임박! 광고문의 062) 512-1144